



프로야구가 온다!

8일 시범경기 개막 23일까지 팀당 12경기...KIA, 8~9일 대구서 삼성과 승부

프로야구 9개 구단이 타국에서 보낸 40여일의 시간을 시험받는 시간이 다가왔다. 오는 8일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개막한다. 일본·미국 등에서 전지훈련을 해왔던 각 구단들은 8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되는 시범경기를 통해 2014시즌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한다.

과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담금질을 해왔던 KIA 타이거즈는 8일 대구에서 '디펜딩 챔피언' 삼성 라이온즈와 시범경기 개막전(8일~9일)을 갖는다.

퓨처스 리그에서 비상을 준비하는 막내 KT 위즈를 제외한 9개 구단은 팀당 12경기씩 16일 동안 총 54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새로운 변화와 함께 시범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늘었다. 외국인 선수 특히 외국인 타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관심사다.

2014시즌 프로야구 관도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외국인 선수 제도다. 기존 2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동일 포지션에 3명의 선수를 등록하지 못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타자들이 대거 한국을 찾게 됐다.

KIA의 중장거리형 타자 브렛 필을 비롯한 메이저리그에서 135홈런을 때려낸 SK의 루스 스카, 호르헤 칸투(두산), 루이스 히메네스(롯데), 비니 로티노(넥센), 펠릭스 피에(한화), 에릭 테임즈(NC), 조시 벨(LG), 야마이코 나바로(삼성) 등 각양각색의 외국인 타자들이 시범경기를 통해 한국팬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이들이 만들어 낸 각 팀의 야수진 경쟁구도도 흥미롭다.

마운드에서는 신·구 외국인 선수의 대결이 눈길을 끈다. 더스틴 니퍼트(두산), 크리스 욱스프링(롯데), 브랜든 나이트(넥센) 등이 '한국형 용병'으로 또 다른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 퍼시픽리그 다쓰왕에 빛나는 데니

스 홀튼(KIA)과 역대 외국인 선수 중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앤드류 엘버스(한화) 등이 이들의 아성에 도전한다.

이대형(KIA), 이용규(한화) 등 새 유니폼을 입고 친정을 찾게 될 FA 이적생들도 눈길을 끈다.

이대형은 오는 22일 잠실 원정을 통해 친정 LG를 상대하게 된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에 KIA와 한화의 경기가 잡혀 있지 않아서 이용규의 친정팀 상대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새로운 야구 역사도 시작된다. '호랑이 군단'의 새 안방이 될 광주-KIA 챔피언스필드가 오는 15일 두산과의 시범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속살을 드러낸다.

울산분수 구장도 오는 22일 롯데와 한화의 경기를 통해 프로야구 역사에 첫 발을 내딛는다. 잠실구장과 문학구장 등도 새단장을 끝내고 팬들을 맞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홈런 평평~' 김주형, 감 좋다

백스윙 간결·외다리 타법 타이밍 정확성 높여
 日 프로팀들과 연습게임 두 경기 연속 홈런
 한화 안영명에 만루포...브렛 필과 1루 경쟁

애증의 이름 김주형이 KIA 스프링 캠프에서 변화의 아이콘이 됐다. 1월15일 시작됐던 '호랑이 군단'의 오키나와 캠프가 4일 철수된다. 캠프지에서 끊임없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김주형은 어느 해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다. 지난해 캠프 중도에 탈락해 미국-중국-일본을 돌아야 했던 김주형에게는 격세지감이다.

이번에도 선동열 감독에게 두통을 안겨준 김주형이었지만 올해는 너무 잘해서였다.

지난해 선 감독은 캠프 중반 선수단 인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민을 했다. 선 감독은 일부러 김주형을 중도에 중국 2군 캠프로 보냈다. 자극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번 캠프에서는 달라진 김주형의 쓰임새를 놓고 고민을 했다.

오키나와 연습경기에서 김주형은 3개의 홈런포를 날리며 팀 내 1위를 기록했다. 밀고 당기고 또 만루포까지. 안타 하나도 2루도 여러 차례 밟으면서 파워에 정확성을 더한 모습이었다.

매번 기대를 받아왔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김주형의 설명은 백스윙과 다리에 있다.

퍼져 나오던 스윙을 간결하게 하고, 타격시 다리를 조금 더 들고 있다는 것이 김주형이 말하는 변화다. 타이밍 즉 정확성을 위한 선택이다. 타고난 하드웨어와 힘은 프로야구계에서도 손에 꼽는 김주형이다. 일단 맞히기만 하면 넘어간다고 할 정도로 기본 파워는 갖추고 있지만 정확성이 문제였다. 김주형은 주니치·야구르트와의 연습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냈다.

김주형은 "상대가 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직구 승부를 해왔다. 그래서 편하게 승부를 한 것이다"며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캠프 막바지 국내 팀들과의 경기는 김주형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무대였다. 김주형은 한화와의 연습경기에서 안영명을 상대로 만루포를 날렸다. 몸쪽을 공략하던 안영명의 공이 살짝 가운데로 몰려자 거침없이 방망이가 돌아갔다.

김주형은 "몸쪽을 계속 공략하더라. 몸쪽에 신경쓰고 있었는데 순간 알아서 많이 빠졌다"고 타격 상황을 말했다. 몸쪽 승부에 허무하게 스탠딩 삼진을 당하던 김주형의 홈런. 알아서 몸이 반응한 것이다. 기술적인 변화가 맞아지면서 일단 좋은 결과가 나왔다. 물론 안영명에게 오랜 시간 마운드 공백이 있었고 연습경기는 연습경기일 뿐이다. 하지만 단순하지만 세밀해진 기술이 수확에 여유를 더했다.

김주형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간절함'이다. 오랜 시간 그를 지켜본 동료들도 김주형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절함이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는 타자 외국인 선수가 등장한다. KIA는 브렛 필을 영입해 1루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시키고 있다. 확고한 자리를 가져본 적 없는 김주형은 외국인타자 제도에 직면탄을 맞았다. 지난 시즌 최희섭이 없는 틈을 타 1루에 있던 김주형은 다시 또 솟아나는 경쟁 체제에 내몰렸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김주형의 간절함이 스프링 캠프를 넘어 그라운드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여자컬링 4강 신화

주니어 세계선수권 예선리그 캐나다와 공동 1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맞은 한국 컬링이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한 번 '세계 4강'에 오르는 신화를 썼다.

경북체육회와 의성여고 소속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여자 대표팀은 3일(이하 한국 시간) 스위스 플립스에서 끝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풀리그에서 7승 2패를 기록, 중주국 캐나다와 공동 1위에 올랐다.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4강전은 풀리그 1·2위 팀과 3·4위 팀이 각각 맞붙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2위 팀간 대결의 승자가 결승에 직행하고, 이 경기의 패자와 3·4위 팀 경기의 승자가 준결승에서 맞붙어 다른 한 곳의 결승 진출권을 차지한다.

준결승 패자와 3·4위 팀 대결 패자가 동메달 결정전을 치른다.

4일 오전 3시 캐나다와 1·2위 팀 대결을 벌이게 된 한국은 한 번이라도 더 승리하면 사상 첫 메달까지도 노릴 수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스코틀랜드와의 1차전을 10-7 승리로 장식한 대표팀은 2차전에서 미국에 3-16으로 크게 졌으나 스위스(8-7), 캐나다(8-6), 덴마크(9-5) 등 강호들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스웨덴과의 6차전에서 5-6으로 패배해 잠시 숨을 고른 대표팀은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나란히 7-5로 격파, 4강 희망을 키웠다.

캐나다·러시아·스위스 등과 나란히 6승2패로 공동 선두를 달린 한국은 마지막 경기인 3일 체코전에서 8-6으로 승리해 공동 1위에 오르는 패가를 이뤘다.

한국 여자 컬링이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자 대표팀은 2006년 전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6위에 오른 이후 7년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무대를 밟지 못했다.

2012년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기적을 이룬 한국 여자 컬링은 올해 소치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무대를 밟는 등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2004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코틀랜드에 저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대회에 남자 대표팀을 출전시키지 않았다.

/연합뉴스

소치 여왕들, 두둑한 포상금

빙상연맹 포상금 수여...박승희 6250만원 '최고'



3일 오후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포상식'에서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애리, 김아연, 공상정, 김연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메달 레이스를 책임진 선수들이 두둑한 포상금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3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빙상연맹은 자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개인전 금메달에 3000만원, 은메달에 1500만원, 동메달에 1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단체전은 정부 기준(개인 종목의 75%)에 의거해 금메달을 따낸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대표 선수들에게 각각 2250만원, 은메달을 획득한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팀추월 대표 선수들에게 각각 1125만원을 줬다.

이에 따라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낸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간판 박승희(22·화성시청)는 선수단에서 가장 많은 6250만원을 받았다.

금메달 1개와 은·동메달 1개씩을 획득한 심석희(17·세화여고)는 두 번째로 많은 4750만원을 받았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25·서울시청)는 3000만원을 받았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아쉬운 은메달을 획득한 김연아(24)는 1500만원을 받았다.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김연아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를 치렀다"면서 "앞으로 운동이나 경기의 압박이 없으니 편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상화 역시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없고 말 그대로 쉬고 싶고, 잠도 잘 자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빙상연맹은 소치올림픽에서 선수단을 이끈 지도자와 트레이너들에게도 포상금을 쥐 노고를 치하했다.

이상화를 조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케빈 크로켓 코치와 김형호 코치,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을 지도한 윤재명·최광복·조재범 코치가 각각 2천만원씩을 받았다.

김연아의 선수 인생 마지막 여정을 함께한 신혜숙·류종현 코치는 공동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 빙상연맹은 선수 포상금으로 2억5625만원, 지도자 포상금으로 1억4300만원 등 총 3억9925만원을 풀었다.

/연합뉴스

골프 US여자오픈 한국서도 열린다

5월 19일 천안서 예선전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중의 하나인 US여자오픈 예선이 한국에서도 열린다.

대한골프협회회는 아시아지역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해 국내에서 예선을 치르기로 US여자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US여자오픈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중국, 일본에서도 열린다. US여자오픈 예선이 미국 밖에

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예선은 5월 19일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에서 열리며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84명이 출전한다.

본선 진출 인원은 대한골프협회와 USGA가 협의 중이다. 참가 신청은 3월 5일부터 USGA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올해 US여자오픈은 6월 1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골프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